

한국어 접미사 ‘-적’의 중국어 번역법 고찰

- ‘X적+NP’ 구조에서는 ‘X적’을 중심으로 -

왕 룩 명*

— <目次> —

I. 서론	1. ‘-적’의 분류와 대응되는 중국어 번역 표현
II. 한국어 접미사 ‘-적’의 어원	
III. 한국어 접미사 ‘-적’의 분류	2. ‘-적’의 중국어 번역 용례
IV. 한국어 접미사 ‘-적’의 분류에 따른 중국어 번역	V. 결론

I. 서론

한국어 접미사 ‘-적’은 매우 강한 조어력을 지니는 접미사로서 ‘역사적’, ‘카리스마적’, ‘노골적’, ‘이광수적’ 처럼 많은 파생어를 산출했고 신어 생성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한자어 어기와만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했지만 근래에 와서 ‘카리스마적’, ‘스티브 잡스적’과 같이 한자어가 아닌 어기와 결합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접미사 ‘-적’은 그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번역 작업하는데 있어서도 자주 등장하는 번역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접미사 ‘-적’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다양한 번역의 방식이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번역 방식을 취하는 것이 관건이다. 본고는 보다 쉽게 그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어 ‘-적’에 대응되는 중국어 번역 방식은 아래 1)과 같이 ① ‘的(de)’, ② ‘上的’, ③ ‘性的’(혹은 ‘式的’, ‘型的’), ④ 번역하지 않은 것 네 가지가 있다. 2)는 ‘-적’의 이 네 가지 번역 방식의 예를 든 것이다.

1) 접미사 ‘-적’의 4가지 번역 방식

- ‘-적(的)’→ ㄱ ① ‘的(de)’
- ┆ ② ‘上的’
- ┆ ③ ‘性的’ 혹은 ‘式的’, ‘型的’
- ┆ ④ ∅

2) ① ‘-적(的)’→ ‘的(de)’

적극적 태도→积极的态度

② ‘-적(的)’→ ‘上的’

계산적 착오→计算上的失误

③ ‘-적(的)’→ ‘性的’ 혹은 ‘式的’ 혹은 ‘型的’

단계적 발전→阶段性的发展

④ ‘-적(的)’→ ‘∅’

경제적 빈곤→经济∅贫困

본고는 한국어 접미사 ‘-적’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①②③④의 네 가지 번역 방식들 가운데 알맞은 것을 고르는 방법을 탐색할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설명해야 할 점이 있는데, ‘X적’은 세 가지 분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관형화 구문인 ‘X적+NP’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는 ‘X적’이 명사 앞에서 관형어 기능을 한다. ‘단계적 발전’을 이러한 분포의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 분포는 ‘X적이다’라는 구문으로, 기사 ‘이다’와 결합해 기사 구문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X적’은 ‘이다’와 함께 서술어 기능을 한다. ‘단계적이다’가 이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으)로’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하는 분포이고, 이에 해당하

는 예는 ‘단계적으로’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X적’이 문장에서 하는 기능이 다르면 ‘-적’의 중국어의 번역법도 달라진다. 본고는 번역할 때 가장 오역이 많이 보이는 첫 번째 분포로 제시한 ‘X적+NP’ 구조에서의 ‘X적’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X적이다’ 또는 ‘X적으로’의 ‘-적’은 추후의 논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II. 한국어 접미사 ‘-적’의 어원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어 접미사 ‘-적’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다양한 번역 표현을 취해야 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한국어 ‘-적’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적’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적’의 기원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어 접미사 ‘-적’의 기원에 대해 섬세하게 다뤄 온 연구로는 서재극(1970)과 송민(1985)이 있다. 두 학자는 모두 한국어에 쓰이고 있는 접미사 ‘-적’이 일본어에서 차용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재극(1970)은 개화기 때 외래어의 도입 상황을 정리하는 작업에서 ‘-적’을 일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荒川惣兵衛의 「角川 外來語 辭典」과 大規文彦의 「復軒雜纂」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적’을 설명했다. 「角川 外來語 辭典」에서는 아래처럼 ‘-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적(teki)(佛-teki)英-tic)…적. 중국어의 ‘底’에 해당됨, 명치 초에 柳川春三이 처음으로 -tic에다가 ‘-적’이라는 자를 갖다 붙였다. (과학적, 사회적, 심리적, 목적적 등)

그리고 大規文彦의 「復軒雜纂」에서는

‘的(de)’자를 쓰게 된 것은 -tic과 ‘的’이 음이 닮았다는 것으로 하여 익살맞게(우스개삼아)말한 것일 따름.

이처럼 초기에는 한국어 접미사 ‘-적’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었다. 하지만 “중국어의 ‘底’에 해당됨”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중국어의 영향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용석(1986)은 중국어 ‘底’과 현재 중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的(de)’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的(de)’는 원래 중국에서 두 낱말 사이의 수식관계를 나타내거나 체언 구조를 만들 때 쓰는 하나의 구조조사(허사)로서 송대(宋代)이후의 구어에서는 ‘底’이었던 것이나, 이 ‘底’가 점차 실사(實辭)를 나타내는 말로 흔히 쓰이게 되자 14세기경 원대(元代)에 이르러 그 발음이 비슷한 ‘的’을 그와 함께 혼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오사시대(五四文化運動)를 거치면서 ‘底’는 그 사용이 완전히 폐지되고 현대의 백화문에서는 이 ‘的’만 남아 통용되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김용석(1986)도 한국어 ‘-적’은 그의 형성과정에서 중국어 ‘底’와 ‘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일본이 영어의 접사 ‘-tic’의 일본식 발음과 ‘的’의 일본식 발음 /teki/가 서로 닮았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중국의 조사 ‘的’와 다른 의미 및 기능을 가지는 하나의 접미사로 둔갑시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적’은 중국어의 ‘底’와 ‘的(de)’의 의미 및 기능도 들어 있다고 보고 있다.

유사하게도 김광해(1995)는 한국어 접미사 ‘-적’이 한국어에 등장하게 되는 경로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的(de)’와 일본이 근대에 만든 ‘的(teki)’인 두 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접미사 ‘-적’은 중국어 ‘的(de)’로부터 받은 영향도 존재하고, 일본어 ‘的(teki)’로부터 받은 영향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 ‘的(de)’로부터 영향을 받은 접미

사 ‘-적’은 실질적 의미가 없고 수식관계를 표시하는 기능만 수행하며, 일본어 /teki/의 영향을 받은 ‘-적’은 영어 접미사 ‘-tic’라는 의미를 지닌다. 3장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오늘날 사용하는 접미사 ‘-적’은 역시 실질적 의미가 없고 문법적 표시로서의 ‘-적’과 비교적 의미 기능이 뚜렷한 영어의 ‘-tic’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어원이 다른 두 가지 ‘-적’이 오늘날까지도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존은 접미사 ‘-적’의 사용에 그리고 ‘-적’의 외국어 번역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Ⅲ. 한국어 접미사 ‘-적’의 분류

앞서 ‘X적+NP’의 ‘-적’과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하나의 접미사 ‘-적’과 다양한 중국어 번역 표현들 간의 대응 관계를 구축하려면 우선 ‘-적’에 대한 분류 작업부터 해야 한다. 기존에 ‘-적’에 대한 분류 방법을 연구한 것이 여러 가지 있기 하나 본고는 ‘-적’의 번역 방법을 모색하려는 보다 실용적인 연구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변별도가 강하고 번역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김광해(1995)의 분류법을 택하고 있다. 김광해(1995)의 분류법을 바탕으로 하고 이에 필자가 더 추가한 부분도 있다. 우선 김광해(1995)의 분류법부터 살펴본다.

김광해(1995)에서는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호 좌측의 관계화 구문으로부터 우측의 계사구문으로의 전환 가능 여부에 따라 ‘-적’을 I부류와 II부류로 나눴다.¹⁾

1) 김광해(1995)에서는 ‘-적’을 I부류, II부류, III부류로 나눴다. III부류는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만 하는 부류이며 ‘가급적, 비교적’ 두 단어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III부류는 수량이 너무 적고 우연적인 이유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김광해(1995)에서 I부류, II부류의 ‘-적’만 다룰 것이다.

3) ‘-적’의 하위 분류(김광해(1995))

부류 I의 ‘-적’: N1적(인) + N2 ⇨ N2가 N1적이다

예: 정신적 건강 ⇨ *건강이 정신적이다

계산적 착오 ⇨ *착오가 계산적이다

부류 II의 ‘-적’: N1적(인) + N2 → N2가 N1적이다

예: 단계적 발전 → 발전이 단계적이다

개방적 기업 → 기업이 개방적이다

부류 I에 속한 ‘-적’은 좌측의 관계화 구문에서 우측의 계사 구문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과 ‘계산적 착오’라는 관계화 구문 가능하지만 ‘*건강은 정신적이다’와 ‘*착오가 계산적이다’라는 계사구문은 모두 가능하지 않은 문장들이다.

하지만 부류 II의 ‘-적’의 경우가 다르다. 예문 ‘단계적 발전’, ‘개방적 기업’을 계사구문으로 변형시킬 때 ‘발전이 단계적이다’, ‘기업이 개방적이다’라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김광해(1995)에서는 부류 I의 ‘-적’은 뚜렷한 의미가 없고 수식관계만 표시해주는 ‘관형화소’에 해당하는 ‘-적’으로 보고 부류 II의 ‘-적’은 선행어기의 내포적 의미를 ‘도식화’시키는 비교적 뚜렷한 의미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식화’라는 기능은 ‘-적’을 선행어기에 부착하여, 그 어기에 관하여 화자와 청자 간에 이미 경험화된 내용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속성 체계 중 가장 잘 알려진 제1번 속성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과정이며 일종의 은유라고 지적하였다. 부류 II의 ‘-적’이 지니는 ‘도식화’ 기능을 3)의 예로 설명하자면, ‘단계적’의 ‘-적’은 명사 ‘단계’에 관하여 화자와 청자 간에 이미 경험화된 내용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속성 체계 중 가장 잘 알려진 제1번 속성의 의미, 즉 ‘차례로 진행되는’ 의미를 부각시킨다. 마찬가지로 ‘개방적’의 ‘-적’도 명사 ‘개방’의 제1번 속성의 의미인 ‘문이나 어떠한 공간 따위를 열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하게 함’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반대로 ‘정신적 건강’의 ‘-적’, 그리고 ‘계산적 착오’의 ‘-적’은 이와 같은 ‘도식화’

의 의미 기능이 없다.

김광해(1995)의 부류 I, 부류 II의 분류법은 ‘-적’ 내부의 중요한 기능 차이를 잘 나타냈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부류 I, 부류 II에 모두 속하지 않은 ‘-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적, 적극적, 간접적’ 등 ‘-적’들이다. 이들은 4)에서 보인 것과 같이 관형화 구문에서 계사구문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 4) 국제적 회의 → 회의가 국제적이다
 적극적 자세 → 자세가 적극적이다
 간접적 영향 → 영향이 간접적이다

하지만 ‘국제적, 적극적, 간접적’이 들어 있는 관계화 구문이 계사구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적’을 선불리 부류 II에 넣을 수 없다. 부류 II의 ‘-적’은 모두 선행 어기를 ‘도식화’시킨 ‘-적’들이는데 ‘국제적, 적극적, 간접적’에서의 ‘-적’은 엄밀히 말하면 도식화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때 접미사 ‘-적’은 앞에 ‘국제’, ‘적극’, ‘간접’ 등 어기에서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제1번 속성의 의미를 도식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적극’, ‘간접’ 원래부터 ‘속성’ 그 자체이며 더 이상 ‘-적’으로부터 도식화의 과정을 거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적극적, 간접적’의 ‘-적’이 부류 II의 ‘-적’과의 차이점은 선행어기의 문법지위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부류 II의 경우 ‘-적’의 선행어기 ‘단계’, ‘개방’은 주어와 목적어 모두 될 수 있으며 관형어의 수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사로 판단할 수 있으나, ‘국제’, ‘적극’, ‘간접’은 명사로 보는 관점도 있으나 실은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모두 올 수 없으며 관형어의 수식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명사로 보기 어렵다. ‘국제’, ‘적극’, ‘간접’과 같은 한자어에 대해서 이익섭(1975), 노명희(1998)에서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자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이유로 이들을 ‘어근’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4)에서 본

‘-적’은 관계화 구문에서 계사 구문으로의 전환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류 II와 유사하지만, ‘도식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부류 II의 ‘-적’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I 부류, II 부류에 모두 포함시킬 수 없는 ‘-적’을 별도로 부류 III의 ‘-적’으로 규정한다. 부류 III의 ‘-적’은 통사적으로 계사 구문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형태적으로 선행어기가 어근이며, 의미적으로 도식화 기능이 없고 수식관계를 표시해주는 문법적 의미만 지닌 ‘-적’이다. 지금까지 김광해(1995)에서 제시한 부류 I 과 부류 II의 ‘-적’과 본고에서 더 추가시킨 부류 III의 ‘-적’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통사적, 형태적, 의미적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적’의 세 가지 하위 부류를 표로 정리하면 <표 1>와 같다.

〈표 1〉

‘-적’의 분류	계사 구문으로 전환 가능 여부	선행 어기	‘-적’의 의미
	(통사적 특징)	(형태적 특징)	(의미적 특징)
부류 I	전환 불가	명사	뚜렷한 의미가 없고 수식관계를 표시해줌
부류 II	전환 가능	명사	도식화
부류 III	전환 가능	어근	뚜렷한 의미가 없고 수식관계를 표시해줌

지금부터 <표 1>에 근거하여 한 문장에서 나타나는 ‘-적’이 어느 부류의 ‘-적’에 속하는지에 대해 그 구체적인 판단 절차를 살펴 볼 것이다. 우선 통사적 기준을 근거로 번역 대상 ‘X적’이 관형화 구조에서 계사 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만약 전환이 불가능하면 해당 ‘-적’이 부류 I에 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 전환이 가능하다면 이어서 형태적 변별 기준과 의미적 변별 기준을 적용한다. ‘-적’의 선행어기가 명사이면 부류 II로 보는 것이고 선행어기가 어근이면 부류 III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처럼 형태적 기준을 이용할 때 선행어기가 명사인지 어근

인지 뚜렷하게 구분해내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이때는 의미적 기준을 적용한다. ‘-적’이 ‘도식화’(선행명사의 여러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을 추출시키는 기능을 지니면 부류Ⅱ의 ‘-적’으로 봐야하고, 도식화 기능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수식관계를 표시해주는 문법 기능만 한다면 부류Ⅲ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계산적 착오’, ‘적극적 대응’, ‘적극적 대응’을 예를 들어 위에 언급한 식별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본다. 식별 절차는 2단계 혹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2단계에서 명확하게 식별되는 경우는 2단계에서 식별이 끝나지만 2단계에서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을 경우에는 3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5) 1단계: 관계화구문에서 계사 구문으로의 전화 여부를 검토한다.

계산적 착오 → *착오가 계산적이다 ⇒ 부류Ⅰ

개방적 운영 → 운영이 개방적이다 ⇒ 부류Ⅱ 혹은 부류Ⅲ

적극적 대응 → 대응이 적극적이다 ⇒ 부류Ⅱ 혹은 부류Ⅲ

2단계: ‘-적’의 선행 어기의 문법 성격을 분석한다.

‘개방이, 개방을’이 가능 ⇒ ‘개방’은 명사 ⇒ 부류Ⅱ

*‘적극이, *적극을’이 불가능 ⇒ ‘적극’은 어근 ⇒ 부류Ⅲ

명사와 어근의 구분이 쉽게 이루지 않은 경우에 3단계를 이용함

3단계: ‘-적’이 도식화 기능을 지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개방적’의 ‘-적’은 ‘개방’이라는 동명사가 지니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성을 추출해내는 도식화 기능함 ⇒ 부류Ⅱ

‘적극적’에서 ‘적극’이 원래 수식적인 성격이 강하여 ‘-적’이 ‘도식화’라는 의미 기능을 지니지 않음 ⇒ 부류Ⅲ

이상의 변별 절차를 이용해 분류된 I, II, III부류의 ‘-적’의 예시들을 아래 6), 7), 8)처럼 제시해 봤다.

6) 부류 I의 ‘-적’

철수가 계산적 착오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서민이란 아무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사람이다.

춘추전국 시대 2017년 드라마의 내용적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후 단계에서 사법적 처리를 위한 수사 영역을 경찰에게 이관한다.

범세계적 내부구조란 기능 분야와 제조업체가 팀으로 융화되어 세계시장의 요구에 즉각 부응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이다.

7) 부류 II의 ‘-적’

중국합작, 진출이슈에 한 획을 긋는 기록적인 사건이 터졌다!

시대 흐름에 따라 기자단도 개방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이 야당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설빙 사업은 계절적 사업으로 볼 수 있다.

1년에 몇 번에 불과한 명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계산적 사고다.

8) 부류 III의 ‘-적’

‘파업’이라는 극단적 방법보다, 상생의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생활을 뜻 깊게 보내고 싶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에 간접적 영향 미칠 것이 예측된다.

우리는 객관적 시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주와 다문화 사회는 세계 보편적인 추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자면 근래에 접미사 ‘-적’의 사용 빈도가 높아졌으며 선행어기에 임시적으로 ‘-적’을 붙여서 쓰는 경향이 보인다. 이 와중에 일부 ‘-적’의 사용이 남용으로 보는 여지가 생긴다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적’을 사용한 ‘신분적 특권’, ‘계산적 착오’, ‘조직적 구조’보다 ‘-적’을 사용하지 않은 ‘신분 특권’, ‘계산 착오’, ‘조직 구조’가 더 간편하고 명료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접미사 ‘-적’을 사용할 때는 우선 접미사 ‘-적’ 사용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사용함으로써 이를 남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미사 ‘-적’의 남용문

제로 언급한 경우는 대부분 본고에서 제시한 부류 I에 해당함으로써 본고와 접미사 ‘-적’의 남용 간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 (‘신분적 특권’, ‘계산적 착오’, ‘조직적 구조’에 쓰인 접미사 ‘-적’은 모두 부류 I의 ‘-적’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부류 II의 ‘-적’은 생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며, 부류 III의 ‘-적’은 생략하지 않은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적’ 사용의 필요성(혹은 ‘남용성’이라 하여도 무방하다.)을 통해서 ‘-적’을 I, II, III로 분류하는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

IV. 한국어 접미사 ‘-적’의 분류에 따른 중국어 번역

1. ‘-적’의 분류와 대응되는 중국어 번역 표현

2장에서 세 가지 판단 기준으로 한국어 접미사 ‘-적’을 부류 I, II, III로 분류했다. 본장에서는 부류 I, II, III에 속한 ‘-적’들이 각각 어떠한 중국어 번역 표현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많은 번역의 예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부류 I, II, III의 ‘-적’과 1장에서 언급한 ‘-적’의 4가지 번역 형식(아래 1')) 사이의 대응 관계는 아래 <표 2>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1) 접미사 ‘-적’의 4가지 번역 방식

‘-적(的)’ → ① ‘的(de)’

└ ② ‘上的’

└ ③ ‘性的’ 혹은 ‘式的’, ‘型的’

└ ④ ∅

〈표 2〉

‘-적’의 분류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부류Ⅰ	的, ∅, 上的
부류Ⅱ	性的, 式的, 型的
부류Ⅲ	的, ∅

부류Ⅰ의 ‘-적’은 ‘계산적 착오, 감정적 변화’ 등에서 나타나는 선행어기가 명사이면서 ‘-적’이 뚜렷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처럼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관형 구조의 표시인 ‘的’로 번역해도 가능하고 또한 중국어에서는 으레 명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 사이에 어떠한 관형형 표시가 없어도 수식 구문을 형성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을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 ‘-적’을 번역하지 않을 경우 문장이 더 간결해지므로 음운적으로 간결함을 추구하는 텍스트는 ‘-적’을 번역하지 않은 것을 선호한다. 또한 굳이 이때 ‘-적’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에 관련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중국어 ‘上的’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류Ⅰ의 ‘-적’은 ‘的, ∅, 上的’와 같은 3가지 번역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부류Ⅱ의 ‘-적’은 ‘도식화’의 기능 즉 선행명사의 성질을 후행명사에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중국어의 준접미사 ‘性’, ‘式’, ‘型’이 이러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준접미사 ‘性’, ‘式’, ‘型’에 수식 구조의 표시인 ‘的’를 더 추가하면 ‘性的, 式的, 型的’라는 번역 표현도 가능하다.

부류Ⅲ의 ‘-적’의 경우는 부류Ⅰ의 ‘-적’과 비슷하게 뚜렷한 의미가 없고, 수식 구조를 표시해주는 문법적인 기능밖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류Ⅰ과 비슷하게 ‘的, ∅’라는 중국어 대응 표현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부류Ⅰ의 ‘-적’이 지닌 ‘...에 관련된’이라는 의미는 없다는 점에서 부류Ⅰ과 구분되며 그렇기 때문에 ‘上的’로 번역할 수 없다. 이상으로 부류Ⅰ, Ⅱ, Ⅲ의 ‘-적’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소개하였다. 지금부터 이러한 대응 체계를 적용한 구체적인 번역 용례를 살펴볼 것이다.

2. ‘-적’의 중국어 번역 용례

1) 부류 I의 중국어 번역 용례

부류 I의 중국어 번역은 흔히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번역하지 않는 것, ‘的’로 번역하는 것 그리고 ‘上的’로 번역하는 세 가지 방식이다.

① 번역 방식1: -적→∅

경제적 빈곤→经济贫困
 계산적 착오→计算错误
 감정적 변화→感情变化
 내용적 특징→内容特征
 문학적 교육→文学教育
 사법적 처리→司法处理
 사상적 기반→思想基础
 사회적 문제→社会问题
 시간적 순서→时间顺序

신분적 특권→身份特权
 심리적 변화→心理变化
 육체적 피로→肉体疲劳
 이론적 배경→理论背景
 재정적 지원→财政支援
 정신적 지주→精神支柱
 품질적 차이→品质差异
 정책적 착오→政策错误
 행정적 절차→行政程序

② 번역 방식2: -적→的

경제적 빈곤→经济的贫困
 계산적 착오→计算的错误
 감정적 변화→感情的变化
 내용적 특징→内容的特征
 문학적 교육→文学的教育
 사법적 처리→司法的处理
 사상적 기반→思想的基础
 사회적 문제→社会的问题
 시간적 순서→时间的顺序

신분적 특권→身份的特权
 심리적 변화→心理的变化
 육체적 피로→肉体的疲劳
 이론적 배경→理论的背景
 재정적 지원→财政的支援
 정신적 지주→精神的支柱
 품질적 차이→品质的差异
 정책적 착오→政策的错误
 행정적 절차→行政的程序

③ 번역 방식 3: -적→上的

경제적 빈곤→经济上的贫困
 계산적 착오→计算上的错误

신분적 특권→身份上的特权
 심리적 변화→心理上的变化

감정적 변화→感情上的变化	육체적 피로→肉体上的疲劳
내용적 특징→内容上的特征	이론적 배경→?理论上的背景
문학적 교육→文学上的教育	재정적 지원→财政上的支援
사법적 처리→司法上的处理	정신적 지주→精神上的支柱
사상적 기반→?思想上的基础 ²⁾	품질적 차이→品质上的差异
사회적 문제→?社会上的问题	정책적 착오→政策上的错误
시간적 순서→时间上的顺序	행정적 절차→行政上的程序

2) 부류II의 중국어 번역 용례

이때 ‘-적’과 대응하는 중국어 번역은 흔히 ‘-性的’ 혹은 ‘-式的’, ‘-型的’ 등 준접미사(准词缀)가 참여한 형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번역 방식 1: -적→...性的

기록적 사건→记录性的事件	단계적 발전→阶段性的发展
계절적 실업→季节性的失业	문학적 표현→文学性的表达
공격적 행동→攻击性的行动	모범적 풀이→示范性的解答
대표적 사례→代表性的事例	정책적 추진→政策性的推进

② 번역 방식 2: -적→...式的

기계적 동작→机械式的动作	현대적 설비→现代式的设备
개방적 운영→开放式的运营	한국적 정서→韩国式的情愫
천재적 재능→天才式的才能	

③ 번역 방식 3: -적→...型的

집약적 분포→集约型的分布	발전적 사고→发展型的逻辑
현대적 설비→现代型的设备	학구적 분위기→学究型的氛围
실용적 학문→实用型的学问	향락적 대중문화→享乐型的大众文化

2) 문장 앞의 ‘*’표시는 문장이 비문을 의미하며 ‘?’표시는 확정된 비문이라기 보다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의미한다. 부류 I의 ‘-적’을 ‘上的’로 번역할 때 가끔 이중적 의미가 생기거나 간결함이 결여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부류Ⅱ의 ‘-적’은 ‘도식화’의 기능 즉 선행명사의 성질을 후행명사에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때 ‘-적’을 이와 유사한 ‘도식화’의 기능을 지닌 ‘-性(성)’, ‘-式(식)’, ‘-型(형)’라는 준접미사로 번역해야 한다. ‘-性(성)’은 ‘성격, 성질’의 의미가 강하고, ‘-式(식)’은 ‘형식’ 또는 ‘양식’의 의미가 내포되고 있으며 ‘-型(형)’은 ‘유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부류Ⅲ의 ‘-적’을 ‘-性(성)’, ‘-式(식)’, ‘-型(형)’ 가운데 어느 것으로 번역해야 하는지는 ‘-적’의 선행어기와 후행 명사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며 실제로는 어떤 규칙이 있기도는 관용적 용법인 경우가 많다. 한편, ‘-性(성)’, ‘-式(식)’, ‘-型(형)’ 중에 두 가지 이상으로 번역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 표현 ‘집약적 분포’에 ‘集约型的分布’와 ‘集约式的分布’가 모두 적절한 번역 방식이며 의미적 차이도 거의 없다.

3) 부류Ⅲ의 중국어 번역 용례

부류Ⅲ의 ‘-적’과 대응되는 중국어 번역 표현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的’이고, 또 하나는 번역하지 않는 것이다. 아래는 해당 번역용례이다.

① 번역 방식 1: -적→的

간접적 영향→间接的影响	보편적 추세→普遍的趋势
객관적 시각→客观的角度	첨단적 기술→尖端的技术
적극적 자세→积极的态度	추상적 도안→抽象的图案

② 번역 방식 2: -적→∅

간접적 영향→间接影响	적극적 자세→积极态度
객관적 시각→客观角度	첨단적 기술→尖端技术
보편적 추세→普遍趋势	추상적 도안→抽象图案

V. 결론

번역 작업을 할 때 번역 대상 언어와 번역 목표 언어 사이에 ‘일대일(一對一)’ 어휘 대응 관계가 형성하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 ‘일대다(一對多)’ 또는 ‘다대일(多對一)’의 대응 관계가 형성된다. ‘X적+NP’ 구조에 나타나는 ‘-적’과 그의 중국어 번역 표현은 바로 ‘일대다(一對多)’의 경우에 해당한다. 즉 번역 대상 언어의 한 가지 표현을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때, 번역 대상 언어의 여러 번역 방식들 가운데 적절한 번역 방식을 고르는 것은 항상 번역자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한다. 접미사 ‘-적’과 대응되는 중국어 번역 방식은 주로 ‘的, 上的, 性的(式的, 型的), Ø’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 번역 방식들 중에서 어떻게 알맞은 것을 골라 내는지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 목적이다.

한국어 접미사 ‘-적’의 의미 및 기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를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관건이다. 본고는 계사구문으로의 전환 가능 여부, 선행어기의 문법 지위, ‘-적’의 의미 기능 세 가지의 기준(각각 통사적 기준, 형태적 기준, 의미적 기준에 대응한다.)에 근거하여 한국어 접미사 ‘-적’을 부류 I의 ‘-적’, 부류 II의 ‘-적’, 부류 III의 ‘-적’으로 나눴다.

〈표 3〉

‘-적’의 분류	계사구문으로 전환 가능 여부	선행 어기	‘-적’의 의미
	(통사적 특징)	(형태적 특징)	(의미적 특징)
부류 I	전환 불가	명사	뚜렷한 의미가 없고 수식 관계를 표시해줌
부류 II	전환 가능	명사	도식화
부류 III	전환 가능	어근	뚜렷한 의미가 없고 수식 관계를 표시해줌

‘-적’에 대한 이런 분류 작업을 한 다음에 부류에 따라 아래 표를 이용해 비교적으로 정확한 중국어 번역 표현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표 4〉

‘-적’의 분류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부류 I	的, Ø, 上的
부류 II	性的, 式的, 型的
부류 III	的, Ø

한국어 접미사 ‘-적’의 올바른 중국어 번역을 이루기 위해 공식적(公式的)인 접근법을 시도하였고 이것은 바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높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접근법은 어디까지나 번역의 근거 또는 틀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문장 맥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적절한 번역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모두가 아는 바일 것이다.

<References>

1. Jeong Cheolju. “A thought of modern Korean descriptive word and sub-classification”. *Korean Studies symposium*, (1985).
2. Kim Kwanghae. “The diagram of meaning and the suffix ‘-적’”. *Practice and applications of vocabulary research*, (1995).
3. Kim Gyucheol. *A Study on Word Formation and Iconicity*. Parkijung, 2005.
4. Kim Yongseok. “On the usage of the suffix ‘-적’”. *Baedalmal* 11, (1986).
5. Kim Jaemun. “Formal Syntactic Considerations on [N+的]”. *Cheongju*

- University Symposium* 12, (1976).
6. Liu Gong wang. "Analysis on the special usage of 'De'", *Lanzhou University Press* 2, 1984.
 7. Nam Gisim·Ko Yeonggeun. *Standard Korean grammar*. Top Publisher, 1985.
 8. Noh Myeonghui. *A study on the word structure of Chinese characters in modern Korea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Doctoral thesis, 1998.
 9. Noh Myeonghui. *A study on the word structure of Chinese characters in modern Korean*. Taehagsa, 2005.
 10. Seo Jaeguk. "Loanword of the time of enlightenment and neologism". *Dongseomunhwa* 4, (1970).
 11. Song Min. "Origin of derivation formation dependent morpheme '-적'". *Linguistic symposium* 24·25, (1985).
 12. Wang Rokmyeong. *A study on the Sub-classification of Korean suffix '-적'*.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Master Thesis, (2012).
 13. Zhu Dexi. "Talk About 'De'". *Zhongguo Yunwen* 1,(1961).
 14. Zhu Dexi. "About 'De'". *Zhongguo Yunwen* 2, (1996).
 15. Zhu Dexi. "Construction And Determinative-sentence Of 'De'". *Zhongguo Yunwen* 12, (1978).

< 참고문헌 >

1. 정철주, <현대국어 서술어의 사상과 하위분류>, 《한국학논집》, 1985.
2. 김광해, <의미의 도식화와 접미사 '-적'>, 《어휘연구의 실제와 응용》, 집문당, 1995.

3. 김규철, 《단어형성과 도상성에 대한 연구》, 박이정, 2005.
4. 김용석, 〈접미사 ‘-적(的)’의 용법에 대하여〉, 《배달말》 11, 1986.
5. 김재문, 〈[N+的] 類名詞에 대한 형태 통사론적 고찰〉, 《淸州大 논문집》 12, 1976.
6. 劉公望, 〈試析“的”的几种特殊用法〉, 《蘭州大學報》 2, 1984.
7.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5.
8.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박사학위논문, 1998.
9.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2005.
10. 서재극, 〈開化期 外來語와 新用語〉, 《東西文化》 4, 1970.
11. 송민, 〈과생어형성 의존형태소 “-적(的)”의 시원〉, 《어문논집》 24·25, 1985.
12. 왕록명, 《한국어 접미사 ‘-적’의 하위 분류 연구》, 성균관대 국어국문과 석사학위논문, 2012.
13. 朱德熙, 〈說“的”〉, 《中國語文》 1, 1961.
14. 朱德熙, 〈關於“說‘的’”〉, 《中國語文》 2, 1966.
15. 朱德熙, 〈“的”字結構和判斷句〉, 《中國語文》 12, 1978.

<Abstract>

When translating, one expression of the target language may be translated into various expressions. At this moment, choosing the proper translation method among the various translation methods always causes the translators to be confused. When translating the Korean suffix ‘-적’ into Chinese, this is also the case of ‘one-to-many’. There are four types of translations that correspond to the suffix ‘-적’ when translating the ‘X적’ into Chinese: ‘的, 上的, 性的(式的, 型的), and Ø’.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choose the right one in these four translation methods.

The reason for this is not the difference in the structure of lexical semantics between the two languages, but the various meanings are embedded in the suffix ‘-적’ for reasons such as differences in etymology. In other words, the suffix ‘-적’ is usually understood in a single meaning, but in fact there are various meanings, so when translating it into Chinese, it is inevitable to translate variously. Therefore, the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suffix ‘- 적’ in the sentence became the key to translating this into Chinese naturally.

Key Words : 접미사 ‘-적’(suffix -적), ‘-적’의 번역(translation of -적), ‘的’ (Chinese 的), 한·중 번역(Korean-Chinese translation), 한·중 통역(Korean-Chinese interpretation)